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업 및 이용 현황

일본의 재단법인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DPCJ)는 매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실태조사(벤더편)」를 기초로 하여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업 동향과 이용 현황을 살펴 보고 있다. 이 자료는 DPCJ에서 지난해 10월 「데이터베이스 대장총람」수록기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것으로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동향을 엿볼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위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서비스업은 초기에 비해 출판·신문·방송등의 매스컴관계, PC등의 전자기기 메이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통신서비스 회사등 새로운 업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주력 비즈니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회답이 있었던 기업의 48.5%가 현재로는 「주력 비즈니스」라고 대답한 반면 「주력 비즈니스는 아니다」란 회답도 44.7%에 달했다. 향후에 대해서는 「주력 비즈니스」라는 회답이 60.2%로 대폭 증가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다.

단, 이런 수치도,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태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현 시점에 대해서는 「프로듀서겸 디스트리뷰터」가 데이터베이스 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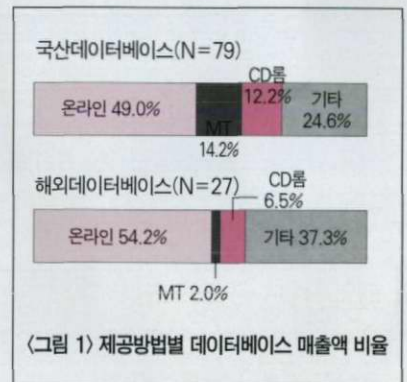
스를 「주력 비즈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7%로 절반에 가까운 것에 비해, 「대행검색업」이나 「프로듀서」에서는 이 비율이 30%정도로 낮았다. 단, 향후에 대해서는 어떤 업태에서도 50%를 넘고 있었다.

2.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매출액

데이터베이스 매출액 중 국산 데이터베이스가 점유하는 매출액 비율은 이 조사항목에 대한 회답 87사의 전체평균이 87.1%로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이 10년간 한결같이 85%를 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며, 조사의 성격에서도 기인할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온라인인가 오프라인인가의 제공방법별 매출액에서는 국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사회답한 기업 79사의 응답에 의하면 온라인에 의한 매출 비율이 4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자기테이프」는 14.2%였으나, 「CD-ROM」은 12.2%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제공방법의 다양화가 두드러졌다. 해외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회답한 27사 중 「온라인」이 54.2%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포인트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증가한 것은 「기타」로서, 여기에는 대행검색등이 포함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앞으로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향후 5년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에 따르면, 기업마다 자사의 향후 5년간의 년평균 성장률을 조사해본 결과, 회답한 81개사가 평균

13.6%정도 성장할 것으로 응답했다. 이 수치는 업체별로 매우 불규칙하며, 「프로듀서 전업」 12사 평균이 26.7%로 개개 기업단위에서의 예측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개개 기업보다도 업계전체는 보다 많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3. 기대되는 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미디어는 최근 특히 다양화되고 있다. 향후 5년간을 염두에 두고 가장 기대되는 미디어와, 년평균 성장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다음은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이 86.0%로 단연 1위였으며, 계속하여 「CD-ROM」이 50.5%, 「PC통신」 48.4%의 순이었다.

4.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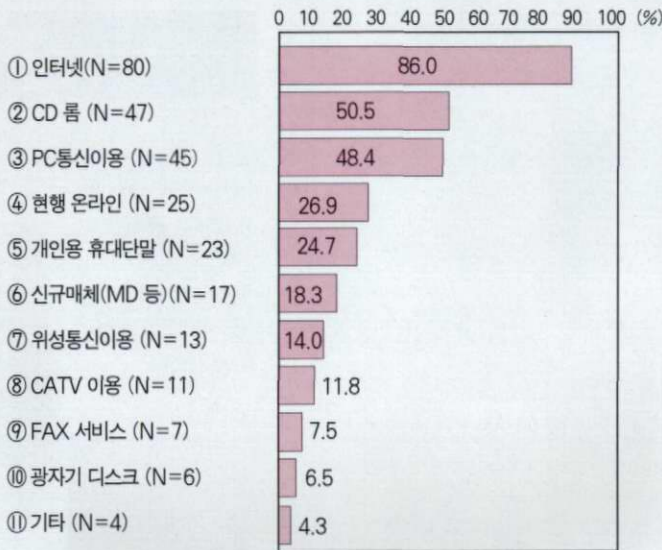
현시점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 종류는 높은 순으로 「텍스트(사실 문자)」, 「텍스트(참고)」, 「수치」로 나타났다. 「화상(정화상, 사진 등)」도 전년조사에 비해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그림 3〉

오프라인으로 제공중인 데이터는 「텍스트(사실 문자)」, 「텍스트(참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수치」, 「화상」의 순이었다. 〈그림 4〉

5. CD-ROM 데이터베이스 제공

CD-ROM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수는 매년 증가 일로를 걷고 있다. 이번조사에서는 회답 기업의 46.8%에 달했다. 〈그림 5〉

현재 CD-ROM으로 제공중인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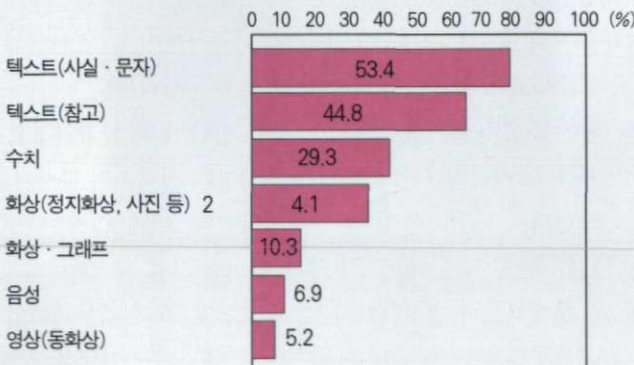


注 : 다이얼 Q2 이용 서비스 및 자기테이프(MT)에 대해서는, 회답 건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타」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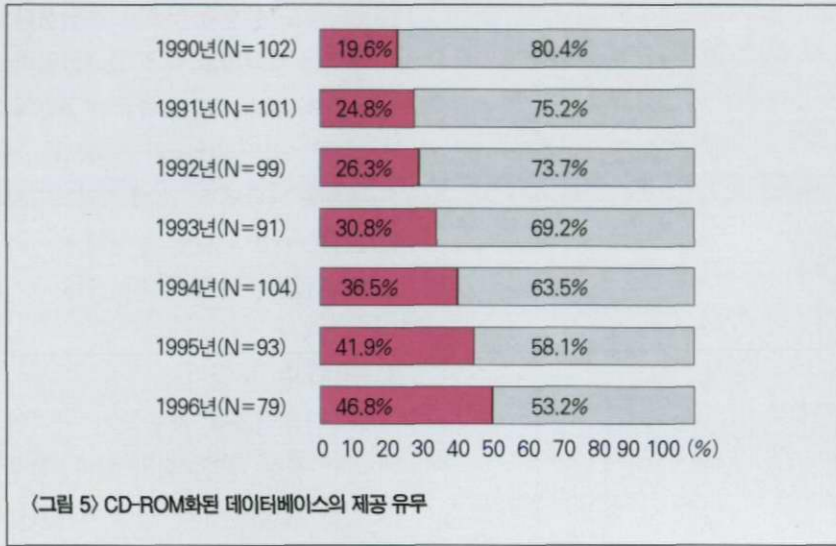
〈그림 2〉 향후 5년간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미디어(N=93 : 복수회답)



〈그림 3〉 온라인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N=57 : 복수회답)



〈그림 4〉 오프라인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N=58 : 복수회답)



데이터베이스 분야를 앙케이트 회답기업(36사)의 답으로부터 조사하여 보면, 「일반」(20사), 「비즈니스」(17사), 「자연과학·기술」(14사)의 순이다.

실제 제공하고 있는 타이틀 수는 「의약학/바이오/화학」의 129건, 「과학기술/특허」 111건, 「신문/잡지/뉴스」 89건, 「경제/비즈니스」 83건이 상위를 기록했다.〈표 1〉

6. 인터넷 이용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실시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회답 79사 중 27.8%인 22사가, 1996년 10월 현재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으로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실시·계획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많이 실시되고 있는 순으로는 「WWW을 이용한 문자·수치·정화상 정보서비스», 「WWW을 이용한 정보검색 서비스», 「전자메일을 이용한 뉴스등의 문자

정보 서비스」의 순이었다. 이 순서는 서비스 계획중이거나 검토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변화없이 동일하였다.

7. 이용률 높은 상용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내용

〈표 2〉는 앙케이트에 회답한 각 법인의 이용금액의 상위 5 시스템을 집계하여, 건수순으로 열거한 것이다.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JOIS(209건 : 52.6%), 니케이텔레콤(200건 : 50.4%), PATOLIS(142건 : 35.8%), DIALOG(137건 : 34.5%), G-Search(90건: 22.7%)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서의 이용이 많은 것은 JOIS(52.0%), 니케이텔레콤(51.2%), PATOLIS(42.7%)의 순이었으며, 중소기업에서의 이용 순은 JOIS(54.7%), DIALOG(42.2%), 니케이텔레콤(40.6%)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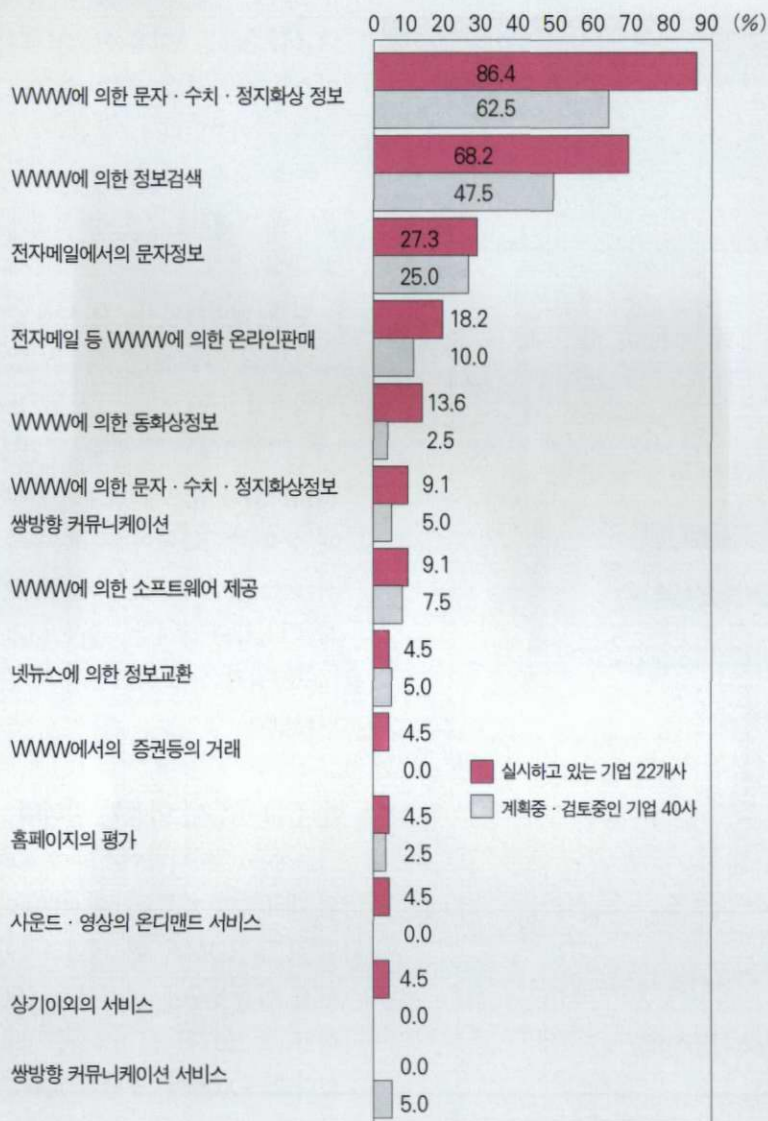
이용빈도가 높은 5개 데이터베이스(파일)에 대해서도 동일 형태 시스템으로 집계하였다 〈표 3〉 서비스 시스템과 거의 연관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의 카운

〈표 1〉 CD-ROM화된 데이터베이스 타이틀 수(총 건수)

	제공중 (총건수) (N=32)	제공예정 (총건수) (N=15)
(일 반)	(127)	(43)
오디오·비주얼·게임·오락	5	10
서비스 가이드·안내 정보	-	-
사전/백과/디렉토리	9	10
CAI	-	-
잡지/도서·간행물 정보	23	3
인물정보(Who's Who)	1	-
신문/잡지/뉴스	89	20
(비즈니스)	(103)	(14)
금융/증권/외환/시장 정보	-	-
규격	-	-
기업·재무 정보	4	1
경제/비즈니스	83	3
상품·제품 정보	2	1
지도·맵핑/전화번호/주소 코드	4	1
통계·인구	3	7
법률·법규·판례/세·세무 정보	7	1
(자연과학·기술)	(244)	(3)
의·약학/바이오/화학	129	-
과학기술/특허	111	2
건축·건설	1	1
컴퓨터/소프트웨어	3	-
재료·소재	-	-
(인문·사회과학)	(45)	(11)
교육/종교학	1	10
예술·문화/문학·역사	-	-
언어·용어	-	-
사회과학/심리학	41	-
도서관·정보과학	3	-
지도·지리	-	1
(기타)	(12)	(2)
합 계	531	73

트가 두드러진다.

법인 유저가 계약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수에 대해서도 조사되었다. 이에 의하면, 전체 평균치는 1사당 7.8 시스템이었으며,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평균 9.8 시스템, 중소기업은 5.3 시스템이었다.



〈그림 6〉 인터넷을 매개로 실시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표 2〉 회답건수 순으로 본 이용금액이 많은 시스템(N=397 : 복수회답)
(각 회답기업의 이용금액 상위 5 시스템의 집계)

1996년		서비스 시스템명
순위	회답건수	
1	209	JOIS
2	200	니케이텔레콤
3	142	PATOLIS
4	137	DIALOG
5	90	G-Search
6	82	STN INTERNATIONAL
7	67	COSMOS
8	40	ELNET
9	37	TSR
10	34	NACSIS-IR
11	30	NICHIGAI-ASSIST
12	25	BRANDY
13	20	로이타모니터
14	18	DIALINE
15	14	MAIN

〈표 3〉 이용회답이 많은 데이터베이스(N=386 : 복수회답)

1996년		서비스 시스템명
순위	회답건수	
1	189	JICST 과학기술문헌 파일
2	173	니케이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3	137	특허·실용신안 파일
4	125	COSMOS2
5	95	-BIGS
6	63	니케이 Who's Who
7	60	WPI
8	54	CA
9	53	아사히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9	38	상표파일
11	32	MEDLINE
12	28	CA-SEARCH
12	28	요미우리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14	24	마이니치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15	21	INSPEC
15	21	니케이 재무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국산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는 전체 평균 「비싸다」가 58.8%, 「적당하다」가 40.4%였으며, 「저렴하다」는

8. 데이터베이스 이용형태

이용금액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이용 비율을 4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표 4〉

① PC통신이외의 온라인·서비스의 이용

② PC통신 경유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용

③ CD-ROM에 의한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

④ 기타 오프라인 서비스의 이용

국산 데이터베이스, 해외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①항의 이용이 국산에서 65.0%, 해외제에서 78.5%로 나타났다. PC통신을 경유한 이용을 포함하여 전년에 비해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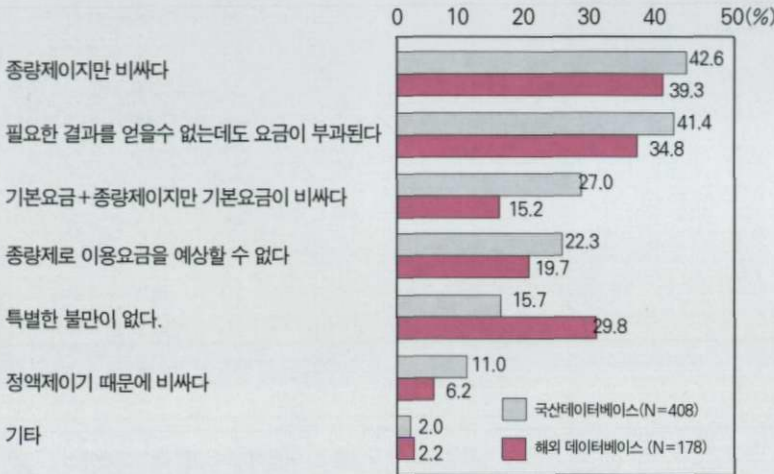
9. 데이터베이스 이용요금과 이용상의 문제점

이용요금에 관해서는 국산·해외제

〈표 4〉 이용형태의 비율

	1995년 실적		1996년 예정	
	국산	해외제	국산	해외제
온라인(PC통신 제외)	65.0(%)	78.5(%)	64.5(%)	76.6(%)
PC통신	23.4	9.1	23.8	10.5
CD-ROM	5.9	7.4	6.1	8.4
기타	5.7	5.0	5.6	4.5

(N=360) (N=177) (N=348) (N=175)



〈그림 7〉 데이터베이스 요금체계에 대하여(복수회답)



〈그림 8〉 향후 추진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 이용방법(복수회답)

0.8%로 나타났다. 해외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평균 「비싸다」 51.8%, 「적당하다」 43.3%, 「저렴하다」 4.9%로 나타나 국산에 비해 「적당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그림 7〉

10. 향후 이용 예정

향후의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하여 회답을 한 기업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용의 고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42.8%),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여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42.3%),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증가시킬 계획이다」(35.5%)가 주를 이루었다.〈그림 8〉

향후 이용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해서는 〈표 5〉에 집계된 바와 같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중인 법인에서 요구가 높은 것은 「기업재무/기업정보」(59.2%), 「신문/잡지/뉴스」(61.3%), 「인물/기관정보」(48.0%)의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법인에서는 「기업재무/기업정보」(59.2%), 「시장·상품」(42.1%), 「신문/잡지/뉴스」(38.2%)의 순으로 나타났다.

II. CD-ROM 이용에 관하여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오프라인상의 대표적인 제공수단은 CD-ROM이다. CD-ROM화 된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이용유무에 대해서는 650건의 회답 중 207건(31.8%)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에 비해 5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는 이용하고 있는 CD-ROM화된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해서 상위 5분야를 그래프화한 것이다. 「사전/백과/디렉토리」(34.1%), 「과학기술·특허」(32.3%)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로는 「지도/전화번호/주소코드」(12.7%)가 눈에 띈다. 지도정보나 전화번호의 CD-ROM은 마케팅을 비롯하여 이용범위가 넓으며, 향후에도 활용이 예견되는 분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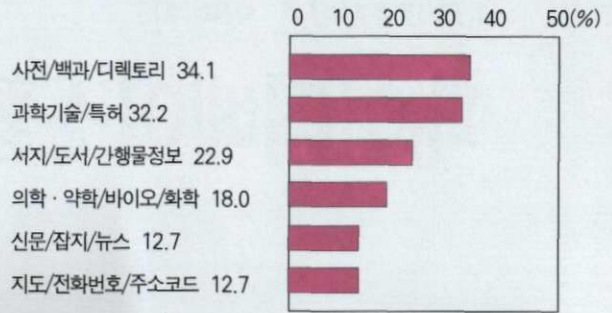
CD-ROM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스페이스 절약」60.7%, 「통

〈표 5〉 향후 이용하고 싶은 상용데이터베이스 분야

	이용중인 데이터베이스	향후 이용하고싶은 데이터베이스
기업재무/기업정보	65.7	59.2
신문/잡지/뉴스	61.3	38.2
인물/기관정보	48.0	27.6
특허	43.3	27.6
시장/상품	43.3	42.1
백과사전/서지정보	38.1	26.3
행정/법률/정치	29.4	25.0
의학/약학/생명학/생물	22.4	14.5
매크로 경제	18.0	9.2
금융/증권/외환	17.4	10.5

(N=344)

(N=76)



〈그림 9〉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CD-ROM화된 정보 분야 (N=205 : 복수회답)

신코스트 불필요」 46.8%, 「일시불의 고정요금」이 40.8%로 나타났다. 또한, CD-ROM이용에 관해 불만인 점

으로는 「정보의 갱신빈도에 문제가 있다」 49.5%, 「검색용 소프트웨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41.9%, 「소프트

트웨어가 너무 비싸다」 30.1%, 「필요한 정보가 CD-ROM화 되어 있지 않다」 29.0%등을 들고 있다. **DPC**

데이터베이스 대장총람 1995년도판

일본내에서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내용등을 신속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대장총람은 「데이터베이스 대장에 관한 규칙(1982년 9월 18일 통상산업성 고시 제 377호) 제 3안」에 기반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업에서 통상산업성에 제출한 신고서를 정리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일반 관람용으로 제공하며,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대장으로 보는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최신정보

데이터베이스 수는, 3,308개(1994년도에 조사된 3,061개에 비해 8.0% 증가).

국산 데이터베이스 수는 1,124개(전체 데이터베이스 수의 34.0%, 1994년도는 34.2%).

수록데이터베이스 수는 5,106개(1994년도에 조사된 4,576개에 비해 11.5% 증가)

데이터베이스 기업(신고기업)은 187사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분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비즈니스」 35.5%, 「일반」 31.0%, 「자연과학·기술」 28.5%, 「사회·인문 과학」 3.1%, 「기타」 1.8%의 순으로 분포

서비스업체에서는, 신고기업 187사 중 83사가 전문업체(프로듀서 25사, 디스트리뷰터 10사 등)였으며, 겸업기업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프로듀서겸 디스트리뷰터 업체가 64사로 가장 많다.

데이터베이스 타입별 데이터베이스 분포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66.3%, 참고 데이터베이스 18.7%, 혼합 데이터베이스 15.0%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注 : 데이터베이스 수는 프로듀서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수가 더 많으며, 수록 데이터베이스 수란 데이터베이스 대장총람에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수를 일컫는다.